광주시, 김치축제 사전홍보 '구석구석트럭' 운영

17~19일 광주신세계서 팝업스토어… 체험형 이벤트로 홍보

시민 참여형 미션게임·체험 콘텐츠로 김치축제 관심 제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광주김치축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사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인기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등장한 만물상 트럭을 재현한 '구석구석트럭'을 콘셉트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감형 추적 미션 '구석구석 김치 도둑 추적 작전'이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게임에 접속한 뒤, 포스터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김치를 훔친 도둑을 추적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완료하면 '구석구석단' 단원으로 임명되고, 광주김치축제를 지키는 특별임무가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홍보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8월 서울 리얼월드 성수 팝업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광주시는 광주김치축제에 앞서 내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찾아가는 가을여행' 행사에 참여해 축제를 알린다. 또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롯데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시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김치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축제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광주김치축제의 매력을 미리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한편 제32회 광주김치축제는 '우주최光(광) 김치파티'를 주제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린다. 김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식을 문화공연과 함께 즐기는 푸드파티 '천인의 밥상', 김치 디제잉 및 미식 퍼포먼스를 결합한 'K-김치 클럽파티', 글로벌 라운지, 김장 체험, 오락, 전시, 김치판매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전광춘 기자

광주 남구, 군분로 토요 야시장 '매출 증대' 큰 기여

상인들 "내년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웃음꽃

광주 남구 군분로 토요 야시장이 축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골목 상권 매출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군분로 일대 상당수 상인은 내년에도 토요 야시장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남구는 17일 "군분로 토요 야시장에 참여한 무등시장 및 군분로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요 야시장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군분로 토요 야시장이 막을 내린 지난 9월 27일 이후를 시점으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10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군분로 토요 야시장에서 향토음식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상인 64명이었으며, 응답자는 50명(참여율 78.1%)이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토요 야시장 운영에 따른 상인들의 매출 변화 및 체감도였다.

먼저 야시장이 열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동일 시간대 매출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상인 34명(68%)은 매출 증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상인은 10명이었고, 24명은 10~50%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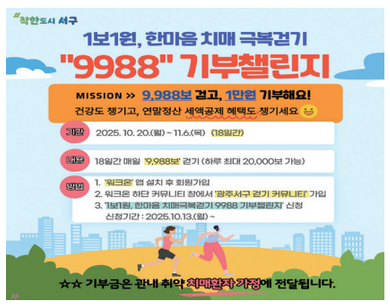
특히 야시장이 문을 연 하루 동안 400만원 가량의 최대 매출을 올린 상인도 있었으며, 매출 증대를 이룬 34명의 일 평균 매출액은 133만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상인 14명은 야시장 전·후 매출 변화가 10% 미만 증가 또는 마이너스 10%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 상인 2명은 마이너스 10~50%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채일 기자

서구, 치매극복걷기 기부챌린지 운영

20일부터 18일간 하루 9988보 달성 시 1만원 기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18일간, 치매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1보1원, 한마음 치매극복걷기 9988 기부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치매상담콜센터 홍보와 함께 주민 참여를 통해 치매 극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는 연중무휴로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8세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88)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자는 '워크온(Walk On)' 앱을 활용해 하루 평균 9988보를 달성할 경우 '1만원 기부권'을 받을 수 있으며 챌린지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기부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기부권이 서구 관내 취약계층 치매환자 가구에 전달된다.

서구는 총 300명의 챌린지 달성자를 목표로 하며 누적 기부금 300만 원은 치매환자 30가구에 각 1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9988 챌린지' 참여가 어려운 주민은 하루 동안 1만보를 걷고 1만 원을 기부하는 '1보1원 순수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지역의 치매환자를 돕는 기부에도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도랑 살리기' 유치원 하천 생태 교육

광주천 현장 방문 물속 생물 채집·관찰 등 나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도랑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관내 유치원 2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생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지역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각 2시간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하천의 기능과 생태계 중요성,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광주천 현장 방문을 통해 물속 생물 채집·관찰 등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유치원 원아들은 그림과 퀴즈를 통한 참여형 수업과 미니 생물 도감 만들기, 하천 생태계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높였다. 또한 하천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천과 물 생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 보호 실천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북구, 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지 마세요!

한국 청년 캄보디아 구금 사태 등 취업 사기 예방 위한 교육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고소득 일자리 구인 광고에 속아 납치 및 실종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 및 실종 피해 신고 접수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 거주 청년들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지역 청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사기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용봉로 105) 3층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인 양동규 변호사가 나서 취업사기 종류, 허위 채용공고 판별법, 피해 발생 시 신고·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양동규 변호사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하며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취업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에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청년과 부모님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북구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이 담긴 카드 뉴스 및 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청년센터 SNS 채널에 게시하고 지역 내 대학교 등 청년 밀집 공간에서 안심일자리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서 K-푸드 산업 투자유치

26일까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라남도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 오는 26일까지 맞춤형 투자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식품 관련 기업, 해외 바이어,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전남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박람회장 K-푸드 산업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TV 홍보영상 상영, 홍보책자·기념품 배부, 1대1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9일까지는 전남도·곡성군·장흥군이, 21일부터 26일까지는 전남도·순천시·무안군이 참여해 주요 특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남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각종 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한다.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는 광주와 순천 등 주요 도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식품산업에 특화된 기반시설과 합리적 분양여건을 갖추고 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기능성·발효식품 등 첨단 바이오기업이 집적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안 몽탄특화농공단지는 공항과 인접한 물류 접근성을 기반으로 식료품·음료 등 가공식품 기업의 최적 투자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전진기지는 화장품·식품·펫푸드 등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염선호 기자